



1680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437번길 67 손곶성지 Tel : (031)263-1242 Fax : (031)263-1252



손곶편지 스물여덟번째

몇 년 전, ‘프랑스에서는 미세먼지 수치가 50을 넘으면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는 허구한 날 그놈의 미세먼지가 50을 훌쩍 넘어 100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평균 시력이 4.0이라는 몽골사람이 와도 소용없지 싶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시계가 엄청납니다. 성지가 살짝 높은 곳에 위치한 지라 시야가 트였는데 아주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가슴마저 탁 트이는 기분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주옥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손곶성지 봉사자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성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50여 분 되는데 먼 곳에서 온다는 점에서 성당의 봉사와는 다릅니다. 이분들 덕분에 성지가 돌아갑니다. 늘 고맙습니다.

같은 날, 프레체스 합창단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 콘서트였는데 적지 않은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를 입은 네팔로 보냈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진흙에 묻혀서 모든 것이 쓸모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합창단이 연습으로 흘린 땀과 노래가 이웃 나라에서는 눈물로 전해지니 참으로 귀한 콘서트였습니다.

스승님께서 ‘돈의 귀천은 없다. 그러나 그 씬씀이에 따라 귀한 돈, 천한 돈으로 갈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돈은 그대로인데 귀한 사람이 쓰면 귀한 돈이 되고 천한 사람이 쓰면 천한 돈이 되니 스승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번 달에는 프레체스 합창단에 이어,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여는 콘서트가 10월 10일 토요일 12시에 성지 잔디밭에서 열립니다. 이에 질세라, 손곶 루멘 관현악단은 10월 24일 토요일 12시에 성지 성당에서 공연을 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음악으로 물들이는 잔치입니다. 놀러들 오세요.

지난달에는 귀한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손골성지가 속한 수지지구의 8개 본당에서 9월의 마지막 주일에 2차 헌금을 모아 보내주십니다. 그 봉헌금은 우리 성지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매우 큰 애정입니다. 작은 규모의 성지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9월 말을 기다립니다. 생일을 기대하는 아이처럼 말이죠.

9월은 순교자성월인지라 가장 많은 교우들이 성지를 방문하는 달입니다. 개인과 단체들, 특히 반모임과 레지오에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오메트르 쉼터의 회합실에서 반모임과 주회합을 하시기도 하는데 미리 연락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만 겹치면 곤란하니 먼저 예약하신 분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메트르 쉼터는 사무실 앞 잔디밭에 있던 가건물이었는데 철거하고 개울 위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옮겼는데 경치도 좋은 데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옮기길 참 잘했습니다.

손골마리아상은 입소문을 탔는지 마리아 동산으로 계단을 오르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사실 손골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회원 모집을 위해 다른 본당을 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저로서는 도심 속의 쉼터, 나만 알고 싶은 평화와 회복의 성지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손골마리아 동산은 밑에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라가 보면 밑에서 볼 때와 전혀 다른 풍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세상을 내려다보며 한탄도 하고 감탄도 하며 머물다 내려오면 그걸로 족하다고 여깁니다. 게다가 요즘 한창 도토리과 밤도 떨어지고 있으니 주우셔도 되고요. 산에 다람쥐가 없어서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시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를 들고 동산에 올라 성모님과 함께 머물다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성당, 어느 성지도 상관없구요. 이 아름다운 달을 만끽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11월에 뵙겠습니다.

다미아노 신부 Dream



손골성지의 따뜻한 하루들

봉사자의 날



함께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로의 마음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한 시간



이재웅 다미아노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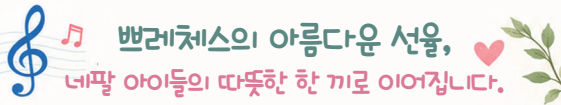


감사와 축복을 함께한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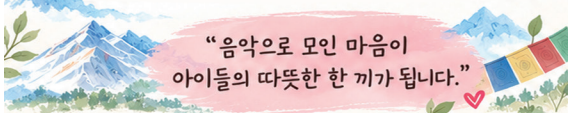
브레체스 정기음악회 · 네팔 학교 급식시설 후원



9월 19일 브레체스 정기음악회



지난 9월 19일 손골성지에서 열린 브레체스 정기 음악회의 후원금은 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Shree Bageshwari School(슈리 바게슈와리 학교)의 급식시설 마련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이들이 다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따뜻한 한 끼를 나눌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데 보태집니다.



Shree Bageshwari School (슈리 바게슈와리 학교)



2026년 초
(재해 이전의 학교 모습)



2026년 8월 29일
(재해로 학교가 토사에 매몰된 모습)

손골성지 소식

● 후원자들을 위한 미사

손골성지에서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매일 봉헌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부름심을 받으신 후원자를 위해서는 사망미사를 포함 3대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미사시간 안내

주일 · 평일 오전11시 (월요일 없음)

문의 : 사무실 ☎ (031) 263-1242

후원계좌 안내

신 협 : 03227-12-001983

농 협 : 235100-51-010119

국민은행 : 203901-04-199515

하나은행 : 414-110501-00504

예 금 주 : (재)천주교 수원교구 손골성지

손골성지 홈페이지 OPEN

성지 소식과 안내를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http://songol.or.kr>



성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Fr.김기창, 강민준, 강순진, 강식순, 강원덕, 강윤숙, 강혜영, 故정문숙, 고종희, 곽외심, 권금숙, 권택인, 김경미, 김광조, 김기연, 김남희, 김도훈, 김도희, 김동범, 김동은, 김명희, 김문경, 김미영, 김상훈, 김성겸, 김수현, 김순태, 김순환, 김시환, 김억래, 김연철, 김영자, 김인숙, 김재성, 김재우, 김재우, 김재훈, 김정자, 김종이, 김주봉, 김창로, 김청자, 김청자, 김춘기, 김태경, 김현기, 김혜선, 김홍일, 남정훈, 민경화, 박경수, 박광윤, 박금자, 박미애, 박성옥, 박순희, 박완자, 박인숙, 박재영, 박창호, 배제호, 백미경, 백정란, 백현규, 성순옥, 송경호, 신동옥, 신현순, 심정미, 안영기, 안용수, 양미진, 양종만, 엄용희, 여승현, 오병택, 오세윤, 오이진, 원유숙, 유현정, 윤상용, 윤종필, 윤혜주, 윤호용, 이경숙, 이경옥, 이근순, 이덕경, 이명미, 이문복, 이상순, 이세영, 이승준, 이영란, 이웅복, 이윤정, 이은화, 이정미, 이정숙, 이종숙, 이택건, 이혜경, 이형원, 이혜숙, 이호성, 임동구, 임상희, 임종수, 임희자, 장명자, 정경순, 정구승, 정모유, 정보혜, 정소영, 정승희, 정애란, 정연순, 정행자, 조성혜, 조영채, 주미선, 주재선, 지영선, 진미영, 최경숙, 최경자, 최공호, 최선미, 최수정, 최수환, 최영진, 최훈근, 최희선, 한미녀, 한애숙, 한지원, 함윤희, 허정희, 홍보경, 홍수경, 홍순기, 홍혜진, 황애현, 황유순, (주)메디웬코스타

(2026년 8월 성지후원금 총 4,438,000원)